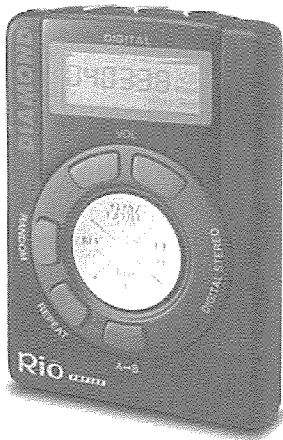




카세트 겸용 'MP3' 출시 봄



▲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사가 개발한 MP3 플레이어.

국내 대형 전자업체들이 차세대 워크맨으로 각광받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본격 판매에 나섰다. MP3 플레이어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재생하는 새로운 음향기기.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판매에 나섬에 따라 MP3 워크맨이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기존 휴대폰카세트(일명 워크맨) 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기존 카세트 워크맨과 MP3 플레이어를 통합한 '아하프리 MP3 플레이어'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 5월부터 국내판매와 동시에 수출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 등 5~6개 기업들이 MP3전용 워크맨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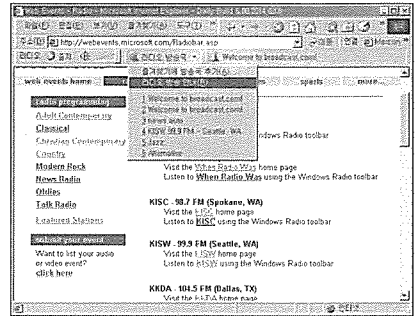
트 겸용제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

LG전자는 기존 카세트와 FM라디오 수신기능에 MP3 재생기능이 있는 모델(AHA-FD770)을 판매할 계획. LG전자는 '카세트와 MP3 기능이 있으면서 크기는 기존 워크맨보다 작다'며 '음질도 CD만큼 깨끗하다'고 밝혔다. 값은 30만원대. 또 LG전자는 라디오 기능 및 MP3 재생기능이 있는 제품(MF-FD350)과 MP3 전용 워크맨(MF-PD330)도 동시에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MP3 워크맨 '엠펙(Yepp)' 3개 모델을 내놓았다. 이 제품은 MP3 재생 이외에 간단한 음성녹음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액정화면(LCD)을 내장하고 있다. 이 제품은 마그네슘 재질로 만들어 가볍고, 우표 크기의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해 수십곡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가격은 20만원대.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사가 '리오(RIO)'라는 MP3 플레이어를 판매중이며, 일본 소니도 MP3 시장 진출을 준비중이다. 국내에서는 새한정보시스템과 에이맥사 등이 제품 수출을 진행중이다.

익스플로러 5 전세계 동시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인



▲ 전 세계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한번의 클릭으로 즐길 수 있는 라디오 도구모음 실행화면

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5'가 지난 3월 18일부터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동시 출시됐다. 제품의 공식 명칭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5(Microsoft Internet Explorer 5)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5의 한글 버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이트(http://www.microsoft.com/windows/ie_intl/ko)와 윈도우 업데이트 사이트(<http://www.windowsupdate.microsoft.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5는 인텔리센스(IntelliSense)의 기술 접목으로 검색, 내비게이팅 및 정보 접근 등의 일반적인 작업을 간단하고도 자동화되도록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S 빌 게이츠회장은 "인터넷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더욱 넓혀주고 발전시켜 주는 등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며 앞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윈도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 5가 완벽하게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획기적인 신기능으로 손꼽히는 윈도 라디오 도구 모음도 함께 공개했다. 이 도구 모음은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웹 검색을 하는 도중이라도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세계 각국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전 세계 2백곳 이상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5 사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중이라고 MS는 밝혔다. 익스플로러 5는 작업의 단순화, 자동화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중 가장 빠르게 설계됐다.

사용자들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4.5와 비교했을 때 30~60%, 인터넷 익스플로러 4.0과 비교했을 때 25% 정도 더 향상된 성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더욱 빨라진 웹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수백여가지의 개선들을 이루어냈다.

▲사용의 간편성 : 인터넷 익스플로러 5는 가장 복잡한 브라우징 작업을 단순화하여 사용자들의 브라우저에 관한 걱정을 덜어주고 웹상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검색 도우미(Search Assistant)는 웹 사이트, 기업체, 지도, 주소 등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여러 검색 엔진의 강력한 성능을 활용한다. 또한, 즐겨찾기의 추가 및 분류, 과거 방문

사이트 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사용상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졌다.

▲자동화 : 인텔리센스 기술의 적용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5는 불필요한 클릭과 키보드 작업을 없애 더욱 빠른 웹 체험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웹에서 특정 콘텐츠의 위치를 찾는 과정의 속도를 더욱 높인 자동찾기(AutoSearch)와 같은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에서 처음 소개된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은 웹 기반의 문서 양식을 채워넣을 때, 사용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기능을 보여준다. 자동수정기능(AutoCorrect)은 URL을 적을 때 범하기 쉬운 타이핑 실수도 자동으로 수정해준다.

▲유연성 : 인터넷 익스플로러 5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정보 검색, 원하는 포털 및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선택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설치 기능 등,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키 조작 기능을 보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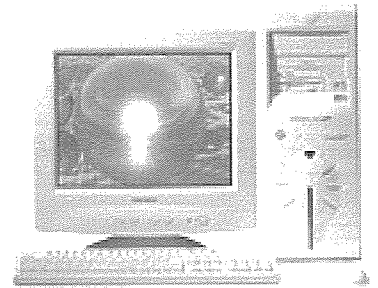
예를 들어, Windows Synchronization Manager를 이용하면 전자메일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용을 위한 웹 페이지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또한 MSN Hotmail과 같은 웹 기반 전자메일을 기본 메일 클라이언트로 지정할 수 있다.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5는 총 소유비용(TCO) 절감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 최고의 기업용 브라우징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쉬운 사용, 안정성, 강력한 관리 툴, 다양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제작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5를 설치하고 있다.

MS는 제약업체에서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운영 키트(Internet Explorer Administration Kit)를 30만대 이상의 자사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곳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5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한가지만 노려라’ 기능성 PC 붐



▲ 인터넷 게임방을 겨냥해 만든 대우 코러스제품.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입학·졸업과 입사시즌이 끝나자 기능성 PC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입학·졸업과 입사시즌이 끝나면 PC시장은 대개 숨고르기를 하게 마련인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네티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게임방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인터넷 전용PC, TV데이터방송 수신용 PC 등 다기능 제품이 앞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인터넷 게임방 시장을 겨냥해 전용모델인 ‘코러스 CT6480-QM508’을

개발, 시판중이다.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별도로 설계했다. 펜티엄 II 350MHz 중앙처리장치(CPU)에 64MB 메모리·40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달았다. 또 부두벤쉬 그래픽 카드, 64가지 악기소리를 낼 수 있는 64폴리 사운드 카드 등을 채택했다.

게임방의 특성에 맞춰 CD롬 드라이브 1개로 여러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버추얼CD'도 함께 제공한다. 기본 가격은 대당 1백60만원이며 그래픽·사운드카드 등 옵션에 따라 달라진다. LG-IBM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인터넷을 쉽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멀티넷 i' 시리즈를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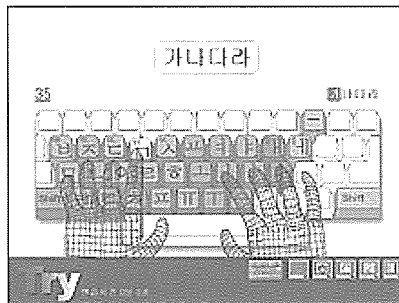
'멀티넷 i'는 다이렉트 인터넷 등 인터넷 전용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사양은 64MB 메인 메모리·8MBAGP 비디오, 40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으로 더욱 빠르게 인터넷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인터넷 활용교육도 시켜주며 인터넷 1년 이용권도 제공한다. 4가지 모델에 가격대는 2백1만~3백40만원이다.

삼성전자는 MBC가 다음달 초부터 실시하는 데이터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와 대화하는 컴퓨터' 매직스테이션 M4600을 발표했다. 컴퓨터로 TV를 볼 수 있는 TV카드와 데이터방송을 수신하는 소프트웨어 TV플러스를 설치한 것이 특징. TV 토론에서 재치있게 답변하는 참석자의 개인 이력이나 좋아하는 가수의 다양한 정보를 방송중에 바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모델이 있으며 가격은 2백10만~2백40만원선이다.

세진전자는 한대의 PC에 여러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무선키보드 'SWK-IRDA'를 개발했다. 한대의 PC에 최대 8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게임방이나 전자상거래 코너에 적합하다. 키보드에서 입력한 정보가 PC 본체에 전송됐는지를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확인, 일반 키보드와 같은 입력 신뢰도를 갖게 했다. 세진전자는 이 제품이 미국 홈쇼핑시장에서 필수적인 결제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7만원선.

키보드 쉽게 익히는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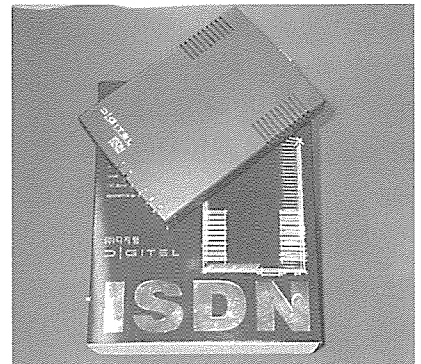
▲ 3차원 와이어 그래픽을 이용한 '이부장 키보드'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30~40대를 위한 타자연습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벤처기업인 N&K소프트사는 짧은 시간에 컴퓨터 자판을 외울 수 있는 '이부장 키보드'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3차원 와이어(선) 그래픽을 이용한 타자연습 프로그램. '가나다라' 등 예제가 나타나면 3차원 컴퓨터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이를 따라 자판을 누르면서 타자를 연습한다. 단문·장문 등 예제를 통해 한글과 영어 자판을 배울 수 있고, 타자 두더지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이 회사는 '컴퓨터 초보자인 사장이 직접 감수를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3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꽤 빠른 속도로 타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0~40대 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에게도 무척 유용하다고, 약 1만원에 이 제품을 판매할 계획.

문의 (02)636-2292.

인터넷 상시접속 ISDN 단말기 개발



▲ ISDN서비스를 LAN처럼 사용할 수 있는 ISDN 상시접속단말기.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전화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디지텔은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6개월간의 개발과정을 통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ISDN 활성화에 최대 과제였던 상시접속(AO/DI) 단말기를 최근 개발했다. 이 단말기를 사용하면 ISDN을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전화할 필요없이

LAN(근거리통신망)과 같이 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있어 전자메일이나 뉴스 제공, 자동데이터 수집 또는 신용카드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단말기는 컴퓨터와 연결해 한번만 접속해 놓으면 인터넷 서버와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종량제에서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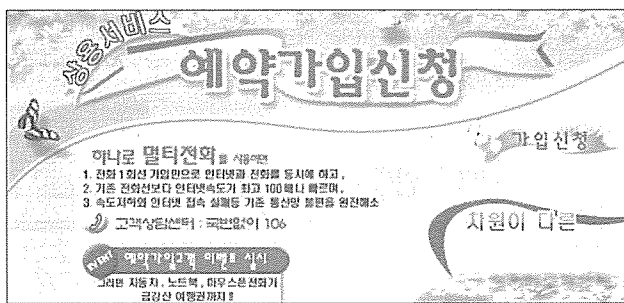
특히 핵심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보급률이 훨씬 떨어진 ISDN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통신망 정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핵심기술이 민간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고속통신과 데이터통신중 전화나 팩스 사용, 혹은 전화 2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소호(SOHO)

사무환경과 원격감시장치, 무인자판기, 기업전산망 등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본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은 하반기부터 ISDN으로 인터넷에 상시접속서비스를 하려는 한국통신과 4월부터 시내전화시장에 뛰어드는 하나로통신에 이 단말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디지털은 “이미 개발된 기술이 미국에서 기술 인증을 받아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중국, 호주 등에 1백억원 규모로 올해 수출키로 했다”면서 “올해 매출규모는 내수시장을 포함해 모두 2백30억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액은 1억2천만원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이 기술은 한국통신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단말기 업체와 공동으로 내년까지 1백30억원을 들여 개발 중이다. 한국통신은 ISDN 상시접속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44개 통화권에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1백44개 통화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 월 5만원 내면 하루종일 인터넷 사용



▲ 하나로통신 인터넷서비스는 홈페이지(www.hanarotel.co.kr)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원이면 하루 24시간 인터넷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상품이 등장했다. 또 전화선 하나로 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전화번호가 서로 다른 4대의 전화를 설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 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8종의 시내전화상품과 요금을 확정, 발표했다.

하나로통신은 4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4대 도시, 5백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 독점 제공해 온 시내전화도 입맛

에 따라 골라 쓰는 '상품선택시대'를 맞게 됐다. 초당 한글 62만5천자를 전송하는 10메가bps급의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전화' 상품의 가격은 가입비 12만원(설치비 10만원, 보증보험 2만원)에 월 사용료 5만원이다.

인터넷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지만 시내전화를 걸 때는 3분당 45원의 통화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PC통신, 인터넷이용이 늘어나면서 월 10여만원이 넘는 전화료에 부담을 느껴온 주부들의 전화료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 가족이 많은 가정은 전화선 하나로 4대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화번호는 각각 부여되며 벨소리 또한 4대가 서로 다르다. '고속인터넷+전화' 상품은 가입비 10만원

(설치비 9만원, 보증보험 1만원)에 모뎀비용 12만원, 월 기본료 8천원~3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속도는 64Kbps, 128Kbps급 두 종류로 기본형은 월 기본료가 8천원(128Kbps급은 1만1천원), 한달 30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고정형은 월 2만원(3만5천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정액형은 2만5천원(3만5천원)이다. 이 밖에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과 영상전화상품도 동시에 제공한다. 하나로통신은 연말부터는 서울 지역의 경우 50% 정도의 가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④7